

2021년 4월 15일 조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농대 기획조정과 과장 서정호(063-238-9700), 사무관 안광현(9703) / 제공일 : 4월 14일(총 7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한국농수산대학, 달라진 농어업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

-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·시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학령인구 감소, 4차 산업 및 디지털 시대 도래, 기후위기 심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*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'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'('21~'25) 마련

* 비전 : 농수산업 미래를 함께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양성 대학

◆ 중장기 발전 4대 추진전략 및 중점 과제

- 영농 의지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 : 학부단위 신입생 모집 및 학부별·전공별 교육과정 개편, 특별전형 확대
- 교육 인프라 고도화 : '새만금 스마트 농업 실습장' 조성, '교육 개발센터' 신설 및 학습 중심 장기현장실습 전환
- 졸업생 영농 정착 지원 강화 : 졸업생 심층관리시스템 도입, 정부·지자체 정착지원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
-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위상 제고 : 일반인 및 농고·농대 졸업생 대상 평생교육 기능 강화, 대학 명칭 변경, 대학 인사·조직 등 운영 선진화

- 한국농수산대학(총장 조재호, 이하 한농대)은 **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'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'을 발표하였다.**
 - 한농대는 '97년 개교 이래 5,551명의 졸업생을 배출('20년 기준)하여, 전체 졸업생의 **84.7%**가 성공적으로 농어업 현장에 정착하고, 졸업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9천여만원으로 일반농가(4,118만원)의 **2배 이상**('19년 기준)에 달하는 등 선도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여 왔다.
 - 그러나, 학령인구 감소, 4차 산업시대 도래, 기후위기 심화 등 변화된 교육환경 하에서, **세분화된 학과 단위(19개) 입시 운영, 공급자 중심 교육체계, 정착 유형별(승계, 창업, 취업) 차별화된 지원 미흡** 등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이에,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**대학 비전을 기존 '미래 농수산업 리더를 양성하는 NO.1 대학'에서 '농수산업 미래를 함께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양성 대학'으로 변경하고,**
 - 대내외 교육환경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**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.**
- 중장기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[학생유치]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

- 영농 기반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영농 의지가 강한 인재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
-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농수산업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**영농기반 점수가 없는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을 확대하고,**
 - * 전형요소 : 특별전형(교과영역, 학생부, 면접), 일반전형(교과영역, 출석, 영농기반, 면접)
 - * 특별전형 모집비율(안) : ('21학년도) 37% → ('22) 48 → ('23) 54 → ('24) 60

- 일반전형에서도 **단순 영농기반 점수를 축소**(‘21학년도 : 15% → ‘22 : 10)하고 영농의지 평가를 위한 **면접평가 점수는 확대**(‘21 : 25% → ‘22 : 30)하여 영농의지가 강한 인재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.

□ **학생의 전공·교과 선택권을 강화**한다. 이를 위해 **신입생 모집방식 및 교육과정을 개편**할 계획이다.

○ **일반전형의 경우, 학부단위로 신입생을 모집**하여 1학년 1학기는 학부제로 운영하고 1학년 2학기부터는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다.

- 다만, **특별전형**(농수산인재전형, 도시인재전형)의 경우, 특정 경력·소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므로 **전공단위로 모집**한다.

* '22학년도 신입생 모집시부터 적용

○ 또한, 학부제 도입에 따라 **학부별·전공별 교육과정을 개편**하는 한편,

- **필수과목을 최소화**하여 교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, **교양·공동 필수과목**에 대해서는 전공 특성에 따라 **선택적 이수**를 허용할 계획이다.

(2) (교육체계)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

□ 4차 산업 기술 등 **미래지향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**하고, 학생들의 **자기주도적 학습기반**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**기존 교과목에 데이터 수집·활용 등 디지털 교육 내용**을 접목하고, **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대응** 등 교육도 강화한다.

- 또한, 「**스마트 ICT 융합교육 시스템**」을 통해 교내 실습장 생육환경(온습도, CO2 등) 데이터를 DB화함으로써 **디지털농업 교육**에 걸맞는 교육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.

* ('21)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→ ('22~'23) 「스마트 ICT 융합교육 시스템」 구축

- 이와 함께, 전공별 정착 유형(승계, 창업, 취업)에 따른 역량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,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을 축소(20학점 이상→15)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.
-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한다.
 - 새만금 간척지에 「한농대 스마트 농업 실습장」을 조성하여 첨단 실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.
 - 교내에 실습장 구축이 어려운 노지 스마트팜 및 스마트 축산* 교육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, 중장기적으로 시설·기능을 확대하여 졸업생·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현장 교육·실습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.
 - * 전통적 축산에서 탈피한 데이터 기반 정밀 사양관리시스템을 도입, 환경문제 해결
 - 중장기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한 「교육개발센터」를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,
 -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통해 기후변화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, 모든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.
- 또한, 2학년 과정인 장기현장실습 운영을 학습 중심으로 개선한다.
 - 교과목과 실습활동의 연계를 강화하고, 장기현장실습 기간(2학년)을 1·3학년과 동일하게 학기제*로 통합 운영하며, 실습시간 총량제(주 5일 40시간, 16주 640시간) 도입하여 학습 중심 실습기반을 조성한다.
 - * (현행) 1학기 3~6월, 2학기 7~10월, 동계방학 11~익년 2월 →
(개편) 1학기 3~6월, 하계방학 7~8월, 2학기 9~12월, 동계방학 1~2월
 - 아울러, 대학에서 기 가입 중인 실습생 종합보험 이외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, 우수 실습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 중심으로 실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.

[3] [정착지원] 영농·영어 정착 지원 강화

- 졸업생 관리를 '영농 이행 점검'에서 '영농 정착 지원' 중심으로 전환한다.
 - 졸업생 심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, 유관기관 보유 정보*를 통해 의무영농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, 심층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 정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.
 - *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건강보험 취득·상실 내역 등
 - 입학부터 학사관리, 졸업 이후까지 다양한 학생 정보를 DB화한 학생 Panel Data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.
- 창업 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정보 제공 및 취·창업 지원을 강화하고, 졸업 후에도 정착 단계별 교육·지원을 지속한다.
 - 영농·영어 정착 지원사업 정보를 지자체별·품목별·정착유형별로 DB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,
 - 졸업 전까지 1인 1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,
 - 창업동아리 및 창업경진대회 참여자에 대한 비용·전용공간·컨설팅 등 창업활동 지원 및 졸업생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영농진입 단계(졸업 후 1~3년차)에는 실습 임대농장, 2030 농지 은행 등 사업 정보 제공 및 정착희망 지자체 연계 중심으로 지원하고,
 - 정착·성장 단계(4년 이후)에는 초기 적정투자 유도를 위한 2040 심층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·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졸업 후에도 정착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[4] [기관운영]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

- 젊은 층의 농어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농어업인, 농고·농대 졸업생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**평생교육 기능을 강화**할 계획이다.
 - * 청년농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단기간에 학교 정원을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감안, 보다 폭넓은 청년 후계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
 - 고3 학생수 : ('16) 609천명 → ('19) 570 → ('20) 502 → ('24) 413('20년 대비 △17.7%)
- 농어업계 교육생·지역주민·잠재적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**다양한 비학위 교육과정**을 개발하는 한편,
- **평생교육원을 '농수산인재개발원'으로 확대 개편**하고 교육과정 및 인원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.
 - * 평생교육 확대 계획(안) : ('21) 9과정 / 720명 → ('22) 11 / 780 → ('25) 16 / 1,000
- **한농대 네트워크를 구축**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활성화해 나간다.
 - (사)한농대청년연합회*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·정책을 발굴·추진하고, 지역·품목 단위 소모임 및 멘토링 운영 등을 통해 졸업생-재학생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 - * 졸업생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 추진을 위해 (사)한국농수산대청년연합회 설립('20.12)
- **교원인사·조직·캠퍼스 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대폭 개선**한다.
 - 대학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, 현행 '한국농수산대학'에서 '한국농수산대학교'로 학교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,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해 **교원 성과연봉제를 도입**할 계획이다.

-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, 토지이용·교통체계·녹지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캠퍼스 조성 계획인 ‘한농대 캠퍼스 마스터 플랜 2030’도 수립(’21.下)할 예정이다.
- 5개 대학 부속기관*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, 도서관을 창업설계 지원 기능으로 특성화하여 창업설계에 필요한 도서·영상물 등 자료를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.

* 평생교육원, 창업보육센터, 융합교육센터, 기후변화교육센터, 농어업·농어촌연구소

-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“급변하는 미래 농어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농어업인을 양성하는 한농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”고 하면서
- “중장기 발전방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직접 꼼꼼하게 챙겨 한농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별첨 >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(전체본)